

98학년도 수능 언어영역 해설

<듣기>

1. 강연자는 역사가들이 누구보다도 역사를 정확히 판단하고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가의 임무를 강조한 것으로서 역사를 바르게 판단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⑤
2.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하여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보여준 대화로서, 장기간의 분단으로 남북간의 언어소통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함께 남북의 언어 차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대화를 통하여 사물과 이름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조류의 학명(學名)이 남북 조류 학자들 간에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나, 학명을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일상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학명(學名)이 남북의 언어 통일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답⑤
3. 이 토론의 주제는 ‘우리 학생들은 환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남자 토론자는 주어진 주제에서 벗어나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의 비판에도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보다는 그저 일치된 의견의 도출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사회자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남자 토론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답④
4. 여자 토론자는 서양 사람들은 우리 전통 음악을 듣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자 토론자도 이것을 긍정하면서 우리가 서양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기가 들어본 음악 속에서 감각이 생기고,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은 음악적 경험에 따라 음악에 대한 느낌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답④
5. 소년은 이리떼가 없다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촌장은 있지도 않는 이리떼가 습격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이리떼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의 은폐라고 할 수 있다. 답①
6. 촌장은 소년에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리떼가 습격해 온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년이 끝까지 사실을 밝히려고 하자, 사실을 밝히게 되면 그 동안 거짓말을 해온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점을 들어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답④

<쓰기>

7.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⑤이다. ‘①국민들의 →국민들이, ②있다고 생각한다 →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③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할 수 있다, ④적절한 접근과 →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고’로 고쳐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답⑤
8. ㉠과 ㉡은 연상의 과정이 상위어에서 하위어로 전개된다. 즉, 연상이 전개될수록 의미가 구체화되어 가는 공통점을 갖는다. 답②
9. 주제가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개발 제한 구역을 완화시켰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근거들을 찾으면 된다. 즉, 개발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 투기가 조장될 수 있으며, 더 많은 개발 요구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답③

10. 한 문단에서 뒷받침 문장은 주제 문장을 내용적, 논리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주제 문장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은 뚝배기가 열을 오래 보전시켜 주기 때문에 뜨거운 국을 즐겨 먹는 우리 민족의 음식 취향에 잘 맞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①은 인물에 대한 진술이 빠져 있고, ②는 연극과 영화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④는 마지막 문장이 감이 익어 가는 과정과 관계가 없으며, ⑤는 주제 문장이 빠져 있다. 답③

11. ㉔은 여행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외 여행의 개선 방향을 말하는 ‘3-가’에는 어울리지 않고, ‘서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감이다. 답④

12. ①~④는 바르게 되고한 것이다. 그러나 ⑤는 초봄에 논이나 냇가에 밭을 답글 때에 밭에 와 닿는 감촉을 나타내는 어휘이므로 ‘차갑다’보다는 ‘시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답⑤

<예술>

13. ‘디자인의 기본 개념은 기능과 모양새이다’를 통하여 ④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행기는 모양새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얻었다’에서 ⑤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행기는 ‘유행에 현혹되지 않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가장 단순하고 세련된 형태를 낳았다’에서 ③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①은 ‘우리는 모든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괄호를 치고, 자연에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마차 시대의 관습과 유행에 얽매어 실패한 디자인이 되었다는 데서 ②의 내용이 이 글과 관련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답②

14. ‘비행기’는 모양새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기능을 중시함으로써 독특하고 뛰어난 디자인을 얻었고, ‘자동차’는 마차 시대의 관습과 유행에 얽매어 실패한 디자인이 되었다는 데서 비행기는 ‘기능적’, 자동차는 ‘인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답①

15. ㉔은 기능과 모양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가장 가까운 표현은 ①이다. ②는 어떤 일이 점점 좋아지거나 재미있어지는 경우에, ③은 일의 형세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④는 서로의 의견을 내세워 남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을 말하며, ⑤는 둘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할 때 쓰는 말이다. 답①

16. ㉔은 실제(자연미)보다 가공의 세계(인공미)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연’보다 자연을 보고 그린 ‘풍경화’가 더 아름답다는 것과 같은 사고 방식이다. 복잡하고 굴곡 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을 보고 ‘소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답③

17.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디자인이 자연미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연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답②

18. 이 글은 디자인에서 기능과 모양새의 조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반된 성격을 지닌 비행기와 자동차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답②

<현대시>

19. (가), (나) 모두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를 자연물에 연관지어 노래하고 있다. (가)에서는 ‘새 새끼, 어린 양, 늙은 산’을 연상하는 것에서, (나)에서는 계절의 순환에 순응하고 수용하려는 모습에서 시적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답⑤

20. ‘촛불’은 어둠을 몰아 내기 위해 예비된 것, 즉 희망의 이미지로 쓰였다. ‘검은 치마자락’

은 밀려올 밤의 '어둠'의 의미이므로 두 시어는 서로 대조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④

21. 시인은 깊어 가는 가을밤에 하늘을 우러러 별을 헤아린다. '별'을 보면서 시인은 과거의 그리운 것들을 회상하고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시인은 추억에서 깨어나면서 자신이 있는 현재 상황이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별'은 시인의 추억을 되살리고 그리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소재로, 시인이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내는 매개체가 된다. 답②

22. <보기>의 설명은 시인의 상황이나 심정을 자연 대상에 이입하여 표현하는 '감정 이입'이다. 9연에서 시적 화자는 부끄러움에 우는 자신의 심정을 밤새워 우는 자신의 심정을 밤새워 우는 벌레에 연결시켜 자신도 고뇌의 울음을 밤새워 우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정 이입'에 해당한다. 답⑤

<수필/희곡>

23. 세 작품 모두 국토의 명승지를 순례한 기행 수필이다. 필자의 주관적인 감상을 다양한 수사 기교를 통해 표현하여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으며, 그런만큼 필자의 개성도 드러나고 있다. 답④

24. (가)의 필자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 절정에 올라 웅대한 신비를 맛보는 데에 무한히 감격스러워하며,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②의 작자도 백운대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면서 신비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답②

25. '곰팡내 나는 서적', '한 조각 책상'은 간접 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 간접 체험이 아니라 세상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자세는 조국의 참모습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연한 삶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답④

26. 이 글은 기행 수필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필자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간단한 해설을 덧붙이면 된다. 필자가 이 글에서 소주, 항주를 끌어들이는 것은 단지 한라산 정상의 전망이 탁 트였음을 나타내려는 의도이므로 소주, 항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답②

27. '역량(力量)'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글에서는 '안목, 도량' 등의 뜻으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답⑤

<언어>

28. ㉠,㉡,㉢,㉣는 국어 순화의 대상이 되는 '외래어'의 의미로 쓰였으나, ㉤는 순화 대상을 구별짓는 '체'의 역할을 하는 '우리말'의 뜻이다. 답④

29. ㉠은 우리말만이 지닌 어떤 특성이 우리 겨레 특유의 어떤 공통된 정신을 표상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흔히 주어를 생략하고 사용하는 것이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그것이 우리 겨레의 공통된 특성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답②

30. ㉡은 우리말에 침투해 쓰이고 있는 외래어는 숨아 내고 대신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어에서 온 '서클'을 대신하여 '동아리'라는 우리말이 자리잡은 것은 그 좋은 예에 해당한다. ㉢,㉣,㉤는 모두 외래어를 우리말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답①

31. ㉢에서 '체'는 '우리말을 오염시킨 요소들을 가려내는 척도나 기준이 되는 우리말'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필자의 주장에 의하면 '체'로서의 우리말은 잡풀을 걸러주고 민족의 정신

을 반영하여, 객관적 세계를 인식의 세계로 걸러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그런 기능은 우리가 우리말과 잡풀을 인식할 때 가능하고, 그것은 민족의 자각, 자존의 사상에 의해 좌우된다. 답⑤

32. ‘체가 고우면’에 쓰인 ‘곰다’는 ‘체에 쓰인 망의 간격이 몹시 좁다’는 뜻이다. ‘배다’는 ‘여럿의 간격이 매우 가깝다’는 뜻으로, ‘촘촘하다’, ‘조밀하다’ 등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가늘다’ 역시 체나 모시, 베 따위가 곱고 촘촘한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밋밋하다’는 흠이 없고 곱음의 의미로, ㉠과 바꾸어 쓸 수 없는 단어이다. 답③

33. 글쓴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섞여 있는 외래어들을 모두 ‘잡풀’이라 보고, 이것을 모두 쏙아 내고 순수한 우리말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은 이러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말에서 외래적인 요소를 무조건 배제했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답③

34. 이 글의 필자의 주장은 외래어를 쓰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①은 외국어 조기 교육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으므로 이 글의 논지와는 거리가 먼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답①

<현대소설>

35. 종학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윤 직원 영감은 종학의 피검 소식을 알리는 ‘전보’를 받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된다. 또한 이 ‘전보’는 주인공의 몰락을 암시하고 새로운 갈등 구조를 야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시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답③

36. 전지적 작가 시점인 이 글에서 서술자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이 보이지만,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의 이기적이고 반민족적인 사고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답④

37. <보기>의 시적 화자는 일제 강점기에 착취당하고 떠도는 민중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시적 화자라면 당시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윤 직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관을 비판하게 될 것이다. 답①

38. 감상문에서 말하고 있는 ‘작품 속의 세계와 자기와의 만남’이란, 등장 인물의 욕망이나 언행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아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것을 말한다. ①,②,④,⑤는 작품에 자기를 비추어봄으로써 깨달음을 얻은 예이나, ③은 새로운 사실을 안 예에 해당한다. 답③

<인문>

39. 다섯째 문단에 ‘궁벽하고 먼 고을은 기회를 보아 토벌할 수 있으니’가 나와 있다. 이로 볼 때, ‘작은 고을부터 탈환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다. 답⑤

40. 글쓴이는, 대신들이 왜놈의 앞잡이가 되어 이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음을 한탄하지만, 왕조 질서를 부정하거나 임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넷째 문단에서는 임금에 대해 충성하는 자세가 나와 있다. 답④

41. 이 글은 ‘-도다’ -라’ 등의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호소력을 얻고 있고, ‘애급, 유구, 맹자’ 등의 고사를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오라로 묶이고 형틀에 매여서’와 같이 극한적 상황을 설정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적과 우리’의 분명한 구분을 통해 적개심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이 글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여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답⑤

42. 이 글은 민족적 긍지와 승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궁지에 빠진 민족적 현실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류애적 사명감’은 글쓴이가 현실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답②

43. ‘전복(顛覆)하다’의 사전적 뜻은 ‘뒤집어엎다’이다. 답①

44. ‘풀이 바람에 따른다’는 것은 바람이 불었을 때 풀들이 일제히 바람의 방향에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문맥으로 볼 때, 격문이 도착하면 일제히 신속하게 떨치고 일어날 것을 소망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답③

<고전산문>

45.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정씨 여자’를 공주와 마찬가지로 부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첩으로 할 것인가의 처리 문제이다. 답③

46. 본문의 대화에 나타나 있듯이, 소문을 확인해 만약에 ‘용모와 재덕’이 자신보다 나으면 우러러 섬기고 그렇지 못하면 첩이나 종으로 삼아도 관계치 않는다고 하였다. 답①

47. 태후는 처음에는 ‘정씨 여자’를 다른 사람과 혼인하도록 조서를 내리라고 황제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공주의 의견을 듣고 ‘정씨 여자’를 불러들일 것을 명하였다. 이는 공주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답②

48. 태후는 공주가 여염집 여자와 같은 지위에 있을 수 없음을 내세워 ‘정씨 여자’를 첩으로 하자고 하고, 공주는 제왕과 천자의 사례를 들어 ‘용모와 재덕’을 기준으로 삼아 정식 부인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각자의 판단 기준, 입장에 따른 명분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답①

49. 이 글은 상류 사회, 특히 궁중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격조 높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 기교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답③

<사회>

50. 이 글의 요지는 맨 마지막 문단에 잘 드러나 있다. 즉, 정보화에 따른 사회 변화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이견들이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맞는 바람직한 정보 사회의 모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정보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동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답⑤

51.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 구조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을 독립된 변수로 보지 않으며,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가 진전되는 일도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 구조론자들은 정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본다.’는 ③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다. 답④

52. ㉠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 생산 체계, 일을 조직하는 방법, 소비 유형, 주요 산업의 위상→경제적 변화
- 여가 및 취미 생활, 사회적 인간 관계 등의 생활 양식→문화적 변화
- 사고 방식, 가치관→이념적 변화

답①

53. ‘어깨를 나란히 하다’는 ‘못하고 나음이 없이 서로 비슷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는 ‘비견(比肩)’이다. ‘비교’는 서로 공통점을 견주어 보는 것이고, ‘대조’는 서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견주어 보는 것이다. ‘상대’는 ‘겨루거나 맞서다.’, ‘대립’ 역시 ‘맞서다’의 뜻이다. 답⑤

54. 셋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듯이, 사회 구조론자들은 앞으로의 정보 사회에서는 대규모의 다국적 조직을 통하여 정부의 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답②
55. 정보화 및 정보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조건들에 맞는 바람직한 정보 사회의 모형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답③

<과학>

56. ㉠은 ‘시간’은 우리가 항상 접하는 개념이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 본질이 무엇이나를 설명하려 하면 어렵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시간의 친숙성과 난해성을 말한 것이다. 답①
57. ‘시간의 대칭성’이란 ‘시간이 역으로 진행하더라도 물체의 운동은 뉴턴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행성의 운동’이다. ‘행성의 운동’은 그 방향을 역으로 진행시켜 본다 하더라도 뉴턴의 법칙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답①
58. (다)문단은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가운데 ‘열역학적 시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열역학적 시간’이란 열역학 제2법칙으로 설명되는 시간이라 하였으므로 (다)의 중심 화제는 ‘열역학적 제2법칙과 열역학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답④
59. ‘전체적인 자연계는 열평형 상태를 향하여 진행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특정한 시공간에서는 비평형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예로 잉크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비평형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는 열평형 상태와 비평형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는 ㉡의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답②
60. ‘우주의 열사’란 최대의 엔트로피 상태가 되고, 따라서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무산되어 더 이상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만유인력의 작용을 무시한 것으로 시간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답③
61. ‘무산(霧散)’은 ‘안개가 걷히듯 흩어져 사라짐.’의 뜻이고, ‘평형(平衡)’은 ‘사물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안정됨.’의 뜻으로, 반의 관계(反意關係)에 있지 않다. 답③

<고전시가>

62. 이별의 상황을 각각 (가)는 ‘대동강 물’, (나)는 ‘청산과 녹수’, (다)는 ‘쇼상 남반과 옥누 고쳐’라는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답④
63. ‘이별의 눈물이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무상함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푸른 물결과 대응하고 있다. 답⑤
64. (나)시에서 ‘녹수’는 흘러가는 것, 변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 ‘청산’은 탈속적 이미지가 아니라, ‘녹수’처럼 흘러가는 임의 정에 대해 변하지 않는 시적 화자의 정을 상징한다. 답⑤
65. <보기>의 시조에서 시적 화자는 ‘밤’이라는 대상을 마치 자신의 생각에 따라 늘이고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다)에서 ‘양춘(陽春)’ 또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양 주관적으로 변용하여 임에게 쏘이고 싶다고 표현함으로써 임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답②

